

2024 년 06 월 09 일 한독연합예배
마인츠 토마스교회
누가복음 19:11-23 (말겨진 므나 이야기)

제 휴가 기간 동안에 옆집에서 우리 화초를 돌보게 맡긴다면, 휴가 후에는 이전보다 화초가 더 많아지면 안됩니다. 이전에 있던 화초가 그대로 있고 죽지만 앓았으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딸이 저녁에 우리 차를 가지고 나가면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딸이 그 차를 새로운 차로 만든다거나 차 두 대를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백미러 두 개가 멀쩡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주유하러 갈 만큼의 연료만 남아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이 비유는 왜 이리 엄격한 걸까요? 두 명의 종은 많은 일을 해낸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받은 것을 열 배로 늘렸고, 다른 사람은 다섯 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받은 것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게 왜 적은 것인가요?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돈을 은행에 가져가서 적어도 이자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위험부담 없이 적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은행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자가 있었는지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시장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재능, 소질, 지능, 건강, 힘, 시간, 아니디어, 동반자, 자녀, 다른 사람들.

우리가 가진 것들 중 일부는 우리가 일하여 얻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언제나 선물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큰 질문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해내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중 얻는 것이 있는지? 또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는지 아니면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지?

이 비유에서 자기 몫을 간직하기만 했던 종은 엄격한 주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는 „저는 위험이 두려웠습니다. 주인님에게 속한 것 중에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주인님이 이해하지 못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인은 매우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두려움이 원래 핑계에 불과한 이유는, 위험부담 없이도 돈을 불릴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몫의 돈을 투자하지 않은 이 종은 아마도 두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게을렀을 뿐입니다. 추가로 일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결정을 하기 싫었고, 적극적으로 일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불충성한 것도 아니고 악의도 없으며 진솔합니다. 기본적으로 믿을 만합니다. 하지만 무관심하고 자족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신앙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즐거움, 활동과 결정력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초등학교에서 곧 4 학년생들을 졸업시키게 됩니다. 4 년 전에 입학했던 어린이들은 새 학교로 가게 됩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4 년의 학업 후에 „여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입학식날 우리에게 맡겨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한다면 부모들과 친구들과 어린이들은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읽을 줄도 계산할 줄도 글쓸 줄도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이야기의 게으름뱅이도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었다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종에 대한 비판은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호소하는 내용은 분명하고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가능성에 따라 뭔가 선한 것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지요.

이 비유에서 맡겨진 것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럴 위험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질을 활용하려 노력하고 이를 하나님과 상의하며 해나간다면 우리는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겨자씨에서 꼭 나무가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밀의 씨가 항상 백 배의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언제나 무엇인가는 이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는 거의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어떤 때는 그저 미소일 수도, 다정한 말 한 마디, 고맙다는 말,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한 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